

## 다이라쿠지 절(大樂寺)

다이라쿠지 절(大樂寺)은 1333년 나라에 있는 큰 사찰 중 하나인 사이다이시 절(西大寺)의 승려 도미쓰(道密)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당시 우사 신궁의 공사(최고위 신관)였던 이토즈 긴쓰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다이라쿠지 절은 이토즈 가문의 보다이시(菩提寺, 한 가문의 일족이 선조의 혼령을 기리기 위해 지은 사원)로 이용되었는데, 당시의 위패는 현재도 지부쓰도(持佛堂)라는 사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1334년 다이라쿠지 절은 고다이코 천황(1288~1339)의 명에 따라 국가의 평화와 보호를 기원하는 칙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도와 불교가 융합되었던 시대에는 우사 신궁과 그 주변의 사찰들을 위해 승려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도 역할했습니다. 다이라쿠지 절은 현재 고야산 진언종(高野山眞言宗)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이라쿠지 절의 본당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7개의 불상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건립되었습니다. 본존은 높이 1.4m의 미륵상으로 그 양옆에는 미륵을 보좌하는 대묘상보살과 법원립보살이 거의 대칭적인 형태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미륵보살은 수행을 하고 있으며 석가모니의 후계자로서 먼 훗날 다음 부처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이라쿠지 절의 미륵상은 연꽃 대좌에 앉아 있는 여래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오른손은 위로 들어올려 두려움을 없애는 몸짓을 취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무릎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또한 이 삼존불은 미륵을 사방에서 수호하는 신인 지국천(동쪽), 증장천(남쪽), 광목천(서쪽), 다문천(북쪽)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불상들은 헤이안 시대(794~1185) 후반 노송나무를 사용해 요세기즈쿠리(머리와 몸통, 손발을 따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조립하는 방식)라는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현재는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이라쿠지 절에는 많은 수의 귀중한 보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본당의 진열장에는 이 절의 시조인 도미쓰가 의식 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고코쇼라는 도구와 진언종의 개창자인 구카이(空海, 774~835)가 직접 손으로 그 일부를 썼다고 전해지는 반야심경 두루마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부쓰도 당에는 6개의 팔을 가진 자비의 보살인 여의륜관음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불상은 헤이케모노가타리(13세기에 쓰여진 군기문학)에 등장하는 강력한 무사 가문 헤이케(다이라 가문)의 일원인 다이라노 시게모리(1138~1179)가 소유했었다고 여겨집니다.

다이스도 당(大師堂)과 고마도 당(護摩堂)은 불경을 암송하면서 고마기(護摩木)라 불리는 나무판을 신성한 불에 태우는 고마 공양 의식을 행할 때 이용됩니다. 법당 안에는 부동명왕상과 구카이상, 그리고 88개의 작은 불상(하나의 불상이 구카이와 관련된 시코쿠 지역의 영지 88곳을 의미함)이 있습니다. 경내에는 보살과 명왕 등의 석조상과 여러 개의 석탑이 있으며, 종루에 매달린 커다란 범종은 138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오이타현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일본산 범종입니다.

다이라쿠지 절은 우사 신궁의 정북쪽, 신교 다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배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본당 입장은 유료입니다.